

# 세대통합교육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s on the Children's Attitudes Toward Elderly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변명연\*\*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은경\*\*\*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angwon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Byun, Myung-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Eun-Kyu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and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 influences the children's attitudes toward elderly.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132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ttended the regional children's centers or social education centers that conduct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s. The respondents reported positive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perceived elderly as kind, likable, bright, clean and happ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affect children's attitudes toward elderly. While frequency of contact with grandparents, perceptions about grandparents, and frequency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s had strong effects on the children's attitudes toward elderly, experience of living with grandparents, perceptions about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s, and helpfulness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s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elderly.

---

▲주요어(Key Words) : 세대통합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 노인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elderly), 조부모(grandparent)

### I. 서론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지만 산업화, 도시화와

이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 조차 노인을 접촉하고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노인문제와 더불어 세대간의 분리와 세대간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이 같은 변화는 노인과 다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 2세대와 3세대는 1세대인 노인들로부터 대부분의

---

\* 이 논문은 2009~2010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주저자의 2009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data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임.  
\*\* 주저자 : 변명연 (E-mail : ruso4360@naver.com)  
\*\*\* 교신저자 : 김은경 (E-mail : eunkyung@changwon.ac.kr)

삶의 지혜를 전수받았으며, 노인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1세대인 노인은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신현중, 2004).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부양을 담당해 왔던 가족의 구조적인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여 부부와 자녀 중심의 생활로 바뀌고 자녀세대의 독립의식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세대간의 분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과거 대가족 제도 안에서 노인과 손자녀세대가 자연스럽게 접촉했던 상황과는 달리 가족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노인 간에 서로 어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세대간의 접촉과 정보의 부족은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노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게 하여 전 연령층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박경란 등, 2004; 신현중, 2004; 한정란, 2000; Fruit et al, 1990, Dellmann-Jenkins, 1997 재인용; Kaplan, 1993;). 또한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제기하고 자원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의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신현중, 2004; 김운정 등, 2004).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서구사회에서도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인세대에 대해 '탐욕스런 노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신현중, 2004).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세대, 중간세대, 그리고 노인세대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은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간의 문제와 갈등 및 서로에 대한 편견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류와 접촉에 의한 긍정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내에서 자연스러운 세대간의 교류가 줄어들어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세대간의 접촉의 장이 요구된다. 가족 이외의 장에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류와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대통합교육이다. 세대통합교육은 여러 세대 혹은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인과 다른 세대간의 접촉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들과 다른 세대가 함께 경험하고 학습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권중돈, 2005; 한정란 · 김귀자, 2004). 때문에 세대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연령과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등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아동기가 지나면서 부정적으로 형성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부정적 고정관념은

(Rodeheaver, 1990; Seefeldt et al., 1977), 비교적 항상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므로(김귀자, 2004; 이미애, 2007; Kalusemeier & Ripple, 1977)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이전인 초등학교 시기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특히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노인세대가 젊은 세대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아동들로 하여금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변화를 시켜 세대간의 이해를 증가시킬 필요가 제기된다(고은교 · 정민숙, 2008; 김영숙, 2002; 김운정 · 정선아, 2001; 한정란, 2000).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조부모와의 동거유무(조명희, 1974; 유문숙 등, 2007; 이선자, 1989; Hans, 1973), 접촉경험(이선자, 1989; Hans, 1989; Seefeldt et al., 1977) 및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임재택 등, 1996; 한정란, 2001; Aday et al., 1991; Laney et al., 1999)이다. 한정란과 김귀자(2004)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이나 학교, 종교, 조부모 변인 등이 아니라 세대통합교육과 같은 호혜적이고 긍정적인 노인과의 경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경란 등(2004)의 연구에서도 세대공동체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앞으로의 한국사회에서 핵가족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령에 따른 분리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이 노인세대를 만나 교류하고 접촉하여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하여 세대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통합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한정란, 2001; 한정란, 2003).

그러나 초등학교 아동 대상의 세대통합교육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등학교와 노인세대간의 세대통합프로그램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실시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권오정, 2004; 김귀자, 2004; 김운옥 · 임재택, 1996; 임재택 등, 1996; 심재선, 2005; 임재택, 2001; 허우정 등, 2006; 하은주, 2003). 세대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한 연구는 아동과 노인간의 관계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세대간 상호작용활동을 조사한 박경란 등(2004)의 연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세대공동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한 양승규(2003)의 연구,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한정란과 김귀자(2004)의 연구와 노인복지

관에서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1·3세대 통합을 위한 한세대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측정한 권중돈(2005)의 연구 등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세대통합프로그램과 노인강사에 대해 아동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 관련 변인과 조부모 관련 변인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현대사회에서 약화된 조부모와의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세대통합프로그램과 노인강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세대통합프로그램 관련 변인과 조부모 관련 변인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태도에 기반하여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태도는 행동을 유발하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박옥희, 2000).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로 Tuckman & Lorge(1952)의 연구를 효시로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조명희, 1974; 차용은, 1980; 윤진·조석미, 1980). 노인에 대한 태도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지만 연령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이선자, 1989; 이영숙, 2001; Hans, 1973; Klausmeier & Ripple, 1971; Seefeldt et al., 1977; Seefeldt et al., 1990; 이선자, 1989; 이은혜, 1981). 연령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한 이선자(1989)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노년기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생과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비교한 신귀연(1995)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청소년보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선자(1989)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며 청소년기에는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기에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의 욕구로 인해 부모 또는 다른 세대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위해 자신의 또래 집단에 몰두하게 되는 배타적인 발달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홍봉선·남미애, 2002).

연령별 비교시 다른 연령에 비해 아동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인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cTavish, 1971; Rodeheaver, 1990; Seefeldt, 1977; 이은혜, 1981; 이미정, 1996). 3세에서 11세 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Seefeldt 등(1977)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60%가 젊은이를 선호한 반면, 노인을 선호한 아동은 20%에 불과하였으며 유아와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복잡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고정관념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그림을 분석한 Falchikow(1990)의 연구에서도 아동들이 노인에 대한 그림에서 다른 세대에 대한 그림보다 부정적인 묘사를 더 많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나 태도가 반드시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젊은 사람과 더 관련시킬 뿐이라는 견해의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Thomas & Yamamoto, 1975).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는 노인에 대한 아동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고은교·정민숙, 2008) 것으로 나타나며, 아동기가 노인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시기로 밝혀졌다(이선자, 1989; 신귀연, 1995; 정미실, 1996; 조명희, 1974). 따라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며,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이전인 아동기 시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세대통합교육과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세대, 자녀세대와 손자녀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현재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 같은 세대간의 분리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세대통합교육이다. 세대통합교육은 세대간의 교류를 위한 차원에서 'the community of generations'라는 명칭으로 McClusky(1990)에 의해 제안되었다. 세대통합교육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함께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여 세대간의 접촉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경험하고 익히고 학습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정란·김귀자, 2004). 세대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연령과 세대가 한 공동체 내에서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어 가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 다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각 세대가 가진 이점과 능력을 이해하게 하고, 젊은 세대의 경우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생 시기의 간접 체험을 통해 인생 전체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하여 연령에 따른 분리와 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귀자, 2004; 한정란·김귀자, 2004).

세대통합교육의 효과에 관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었다(양승규, 2003; 임재택, 2001; Aday et al., 1993; Anderson-Hanley, 1999; Dellmann-Jenkins et al., 1994). 우리나라에는 1993년 한정란에 의해 세대통합교육이 소개된 후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한정란(1993), 양승규(2003)에 의해 실시되었고 교육부 차원의 한국노인교육의 장기정책발전방안과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한준상 등, 1999; 한준상 등, 2000)가 실시되었으며, 생대유아교육의 관점으로 확대 시도 된 후(임재택 등, 1996),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노인과의 접촉이 오히려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도 있다(Baggett, 1981; Oljenik & LaRue, 1981; Revenson, 1989; Seefeldt, 1987). 어린이들이 요양원 노인들을 방문하게 한 Seefeldt(1987)의 연구나 병원시설에서 노인접촉의 기회를 가졌던 아동들(Rosencranz & McNevin, 1969)은 수동적인 노인들과의 접촉 결과 노인과 접촉 경험이 없었던 응답자들보다 오히려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인과 함께 점심을 하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세대간 활동 역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낸다는 연구결과(Oljenik & LaRue, 1981)도 있다. 이 같은 결과들은 노인과의 접촉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대통합교육을 계획할 때 노인과의 단순한 접촉보다는 참여하는 노인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성격,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day 등(1991)은 9개월에 걸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1년 후의 추적조사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4학년 아동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유지되었

음을 보고하였다. Laney 등(1999)도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연령차별적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이 노인을 행복하고, 적극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성원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노화과정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Newman 등(1999)은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한 아동(8~9세)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를 살펴본데, 교사들은 노인들과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가 단순히 아동과 노인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뿐 아니라 학교 과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아동들의 자기관리기술과 친교관계의 향상을 가지고 왔으며, 자신에 대한 확신감과 사회적 기술 및 자기통제의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하였다. 노인세대와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세대공동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한 양승규(2003)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양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유아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노인을 더 깨끗하고, 예쁘고, 친절하고, 재미있고, 건강한 존재로 지각하였고, 노인들도 아동들을 더 착하게 지각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더 깨끗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개의 유치원과 10개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한 임재택(2001)은 노인·아동의 상호작용 활동프로그램이 노인, 아동, 교사 및 학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노인의 각종 역할에 만족하였으며, 노인과의 전통학습활동도 재미있어하였고, 노인의 능력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90%)를 보였으며 노인들과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세대통합교육과 그에 대한 연구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노인간의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한 박정란 등(2004)은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외모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을 통해 노인을 판단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증가한 반면 중립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노인들과 함께 한 활동 가운데 적극적이고 동적인 활동을 선호한 반면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정적·소극적인 활동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시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아·아동과 노인 간의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한 권중돈(2005)도 노인과 유아·아동간에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접촉기회와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게 함으로써 노인세대와 유아·아동세대 모두 서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유아·아동세대에게서 세대통합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노인간의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김귀자(2004)의 연구에서도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한 아동과 노인 양쪽 다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프로그램 참여 후에 서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 이외에도 노인과 상호작용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대통합교육 효과성의 입증과 함께 제기된 것이 세대통합교육 실시의 시기 문제이다. 권중돈(2005)은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의 아동보다는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서 노인세대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보다 긍정적이고, 친밀감 수준도 더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윤정·정선아(2001)는 초등학교생들은 중·고등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고정관념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결과들과 함께 개인의 태도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며 일단 형성된 태도는 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수원, 1980)을 고려할 때 태도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큰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이전인 초등학교 시기가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조부모 관련 변인과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옥은진, 1990; 이은미, 1990; 이선자, 1980; 차용은 1980; Hans, 1973; Poter & O'Connor, 1978), 조부모와의 접촉기회(Hans, 1973) 및 조부모와의 관계(김연수, 1993; 백문화, 1992; 서정기, 1993) 등 조부모 관련 변인이다. 세대간의 분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동들이 가장 손쉽고 친밀한 접촉을 할 수 있는 노인은 조부모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과 동거집단이 비동거 집단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유문숙 등, 2007; 이선자, 1989), 조부모가 생존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 가진 아동일수록 노인에게 긍정적이며(Hans, 1973),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조부모와의 접촉은 아동 및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03).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

한 태도를 비교 연구한 이미애(2007)도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조부모와 자주 만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거나 조부모와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광숙, 1987; 김영숙, 2002; 조명희, 1974; 차용은, 1980). 그러나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다는 연구결과 또한 제시되고 있다(이미애, 2007; 이미정, 1996; 이은미, 1990; 한정란, 2000; Burke, 1982; Resencranz & McNevin, 1969). Resencranz와 McNevin (1969)은 조부모와의 접촉 빈도와 질이 동거경험보다 노인에 대한 평가에 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조부모와 정기적으로 접촉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노인을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노인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핵가족 중심의 가족형태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조부모와의 동거 그 자체 보다는 조부모와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 아동이 노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조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노인간의 세대통합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김귀자(2004)에 의하면 조부모와 자주 만나는 아동일수록 프로그램 직후와 프로그램 종료 100일 후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조부모와의 접촉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창원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교육센터 중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8개 기관을 방문하여 당일 수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임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는 132명의 초등학교생이 참여하였다. 2009년 1월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9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설문지로 아동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변인, 조부모 관련 변인,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정의 생활 수준 등을 포함하였고, 조부모 관련 변인은 동거 경험, 조부모에 대한 인식과 접촉 빈도로 이루어져 있다.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은 동거유무를 물어서 측정하였고, 조부모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1: 매우 싫다 -5: 매우 좋다)로 측정하였으며, 조부모에 대한 접촉 빈도는 6점 척도(1: 1년에 2~3번 -6: 매일)로 측정하였다. 조부모에 대한 인식과 접촉 빈도는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와 외조모에 대한 인식과 접촉 빈도를 질문하고 그 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은 세대통합교육 빈도,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노인강사와의 수업에 대한 기대도, 노인강사와 같이 있을 때의 기분과 노인강사와의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이은혜(1989)의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의 하위검사인 단어연상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비되는 15쌍의 형용사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5점 척도(1: 매우 부정적 -5: 매우 긍정적)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9이다.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교육은 노인과 아동이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3. 자료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부모 관련 변인과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들을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제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파악하였으며, 조부모 관련 변인과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남자아동이 61.4%, 여자아동이 38.6%였으며, 연령은 8세부터 13세까지였고, 10세가 2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10.76세였다. 생활수준은 '보통'이라고 생각한 아동이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8%가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9.1%만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의 95.5%가 외조부모나 조부모 중 한 분 이상 생존하고 있었고, 46.2%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조부모에 대한 인식은 조모(M=4.22), 외조모(M=4.12), 조부(M=4.11)와 외조부(M=3.95)의 순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의 접촉빈도는 친조부모와의 접촉(조모, M=3.43; 조부, M=3.06)이 외조부모와의 접촉(조모, M=2.58; 외조부, M2.57)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사회의 가족관계가 양계화 되어 가고 있다는 하지만 여전히 부계혈족 중심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인식에 대한 평균은 4.09(SD=0.90)이었고, 접촉 빈도의 평균은

<표 1> 연구 참여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조부모와의 관계

특 성	구 분	명(%)	평 균
성 별	남자	81(61.4)	-
	여자	51(38.6)	
연 령	8	12( 9.1)	10.76
	9	17(12.9)	
	10	29(22.0)	
	11	22(16.7)	
	12	37(28.0)	
	13	15(11.4)	
생활수준	매우 못산다	1( 0.8)	-
	못사는 편이다	11( 8.3)	
	보통이다	74(56.1)	
	잘사는 편이다	37(28.0)	
	매우 잘산다	9( 6.8)	
조부모 생존	생존하지 않음	6( 4.5)	-
	한 분 이상 생존	126(95.5)	
동거경험	동거경험 있음	61(46.2)	-
	동거경험 없음	71(53.8)	
조부모에 대한 인식	조 모	-	4.22
	외조모	-	4.12
	조 부	-	4.11
	외조부	-	3.95
	평 균	-	4.09
조부모와의 접촉빈도	조 모	-	3.43
	외조모	-	2.58
	조 부	-	3.06
	외조부	-	2.57
	평 균	-	2.97
부모가 경제적 도움 제공	예	43(32.6)	-
	아니오	24(18.2)	
	잘모름	65(49.2)	
조부모가 경제적 도움 제공	예	43(32.6)	-
	아니오	30(22.7)	
	잘모름	59(44.7)	

2.97(SD=1.73)이었다. 조부모와 부모간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32.6%의 아동이 조부모에게 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고, 부모가 조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 간의 경제적 도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이 각각 49.2%와 44.7%로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초등학생들이어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조부모와 부모간의 경제적인 교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참여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3.78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서 아동이 노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문항별로 분석을 해 보면 '불친절한-친절한' 문항의 점수가 4.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싫은-좋은'(M=4.23), '표정이 어두운-표정이 밝은'(M=4.20), '더러운-깨끗한'(M=4.19), '불행한-행복한'(M=4.11), '존경스럽지 않은-존경스러운'(M=4.08)의 순으로 나타나서, 아동이 노인에 대해 친절하다, 좋다, 표정이 밝다, 깨끗하다, 행복하다, 존경스럽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위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요인은 '가난한-부유한'(M=2.94)으로 전체 15개 항목 중 유일하게 3점 이하로 나타난 항목이다. 이를 통해 아동이 노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항목이 '한가한-바쁜'(M=3.11) 항목이나 이 점수는 중간으로 나타나 아동이 노인들이 바쁘지도 한가하지도 않은 보통

<표 2>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점수

문항	평균	표준편차
허약한-건강한	3.72	1.26
더러운-깨끗한	4.19	0.96
불친절한-친절한	4.27	0.99
싫은-좋은	4.23	0.97
가난한-부유한	2.94	1.09
불행한-행복한	4.11	1.01
쓸모없는-유용한	3.34	1.22
재미없는-재미있는	4.00	1.11
표정이 어두운-표정이 밝은	4.20	0.95
고집이 센-유순한	3.34	1.78
판단력 없는-판단력 있는	3.96	0.98
존경스럽지 않은-존경스러운	4.08	0.99
보고 싶지 않은-보고 싶은	3.94	1.08
수다스러운-말이 없는	3.22	1.16
한가한-바쁜	3.11	1.37
평균	3.78	0.55
총점	56.65	8.25

정도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참여 아동의 세대통합교육과 노인장사에 대한 태도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세대통합교육과 노인장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아동이 노인장사와 만나는 세대통합교육의 빈도는 주 2회가 5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1회(28.0%)와 주 4회(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매우 재미있다'가 36.1%로 가장

<표 3> 연구 참여 아동의 세대통합교육 관련 사항

구분	빈도(%)	평균(SD)	
세대통합교육 빈도	주1회	37(28.0)	--
	주2회	78(59.1)	
	주3회	2(1.5)	
	주4회	14(10.6)	
	기타	1(0.8)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매우 재미가 없다	1(0.8)	4.0 (.89)
	재미가 없다	1(0.8)	
	그저 그렇다	39(32.0)	
	재미있다	37(30.3)	
	매우 재미가 있다	44(36.1)	
노인장사의 수업에 대한 기대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12(9.1)	--
	잘 모르겠다	60(45.5)	
	기다려진다	60(45.5)	
노인장사와 같이 있을 때의 기분	매우 싫다	2(1.5)	3.71 (1.04)
	싫다	8(6.1)	
	보통이다	59(44.7)	
	좋다	20(15.2)	
	매우 좋다	43(32.6)	
세대통합교육의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6)	4.12 (.93)
	도움이 되지 않는다	5(4.1)	
	그저 그렇다	19(15.6)	
	도움이 된다	46(37.7)	
	매우 도움이 된다	50(41.0)	
계	132(100.0)		
세대통합교육 내용	구연동화	3(2.2)	--
	예절교육	8(5.8)	
	특기적성교육	13(9.4)	
	한문 등 학습지도	103(74.1)	
	기타	12(8.6)	
희망하는 세대통합교육 내용	구연동화	12(8.5)	--
	예절교육	31(22.0)	
	특기적성교육	34(24.1)	
	한문 등 학습지도	45(31.9)	
	기타활동	19(13.5)	
계	141		

\*복수응답

많았고, '재미있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은 30.3%로 나타난 반면 '재미가 없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하여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2/3 이상이 노인강사와의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강사와의 수업에 대한 기대정도는 기다려진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45.5%로 나타났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9.1%였다. 아동들이 노인강사의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지 않은 것은 노인강사가 담당하는 교육과목이 다양하지 않고 한문 등 학습지도(74.1%)에 국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강사와 같이 있을 때의 기분은 '보통이다'가 44.7%로 가장 높았지만 '매우 좋다'(32.6%)와 '좋다'(15.2%)가 47.8%로 '싫다'는 응답 7.6%보다 훨씬 더 많았다.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을 준 정도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나서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78.7%가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동이 참여하고 있는 세대통합교육은 한문 등 학습지도가 7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세대통합교육은 한문 등 학습지도(31.9%)뿐만 아니라 특기적성교육(24%)과 예절교육(22%), 기타 활동(13.5%)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이 노인강사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은 노인강사와의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노인강사와의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학습지도 이외에도 노인강사에게서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받기 원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아동들이 노인강사와의 수업을 더욱 기대하고 흥미롭게 여겨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선행연구를 기초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조부모와의 접촉 빈도, 조부모에 대한 인식, 세대통합교육 빈도,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기대, 노인강사와 같이 있을 때의 기분,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등 8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중 노인강사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노인강사와 같이 있을 때의 기분이 세대통합교육의 도움 정도와의 상관관계가 각각 .52와 .63으로 매우 높아서 상관관계가 .50 이상일 때 고려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기대와 노인강사와 같이 있을 때의 기분 2개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6개 변수만을 포함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들 중 조부모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과 조부모와의 접촉빈도( $r=.27, P<.01$ )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통합프로그램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r=.41, p<.001$ )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서 아동이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조부모 관련 변인 중 조부모에 대한 인식은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r=.20, p<.05$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아동이 조부모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r=.19, p<.05$ ), 조부모와의 접촉빈도( $r=.27, p<.01$ ), 조부모에 대한 인식( $r=.30, p<.01$ )과 세대통합교육 빈도( $r=.19, p<.05$ )가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고, 조부모와 자주 접촉하고, 조부모에 대한 인식이 좋고, 세대통합교육을 자주 받은 아동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관련변인과 노인에 대한 태도 간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1.조부모 동거경험 <sup>a</sup>	1					
2.조부모 접촉빈도	.27**	1				
3.조부모에 대한 인식	.17	.13	1			
4.세대통합교육 빈도	.15	.01	.04	1		
5.세대통합교육 인식	.06	.17	.11	-.17	1	
6.세대통합교육 도움	.01	.01	.20*	.17	.41***	1
7.노인에 대한 태도	.19*	.27**	.30**	.19*	.14	.14

\* $p<.05$ , \*\* $p<.01$ , \*\*\* $p<.001$ , a조부모 동거경험: 0=동거경험 없음, 1=동거경험 있음.



<표 5>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beta$	SE	
조부모 관련 변인	조부모 동거경험 <sup>a</sup>	.12	.10
	조부모 접촉빈도	.25**	.03
	조부모에 대한 인식	.23*	.06
세대통합 프로그램 관련 변인	세대통합교육 빈도	.23*	.06
	세대통합교육 인식	.18	.07
	세대통합교육 도움	-.07	.07
R <sup>2</sup>		.252	
F-value		5.44***	

\*p<.05, \*\*p<.01, a조부모 동거경험: 0=동거경험 없음, 1=동거경험 있음.

### 5. 조부모 관련 변인과 세대통합교육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부모 관련 변인과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계수는 .252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25.2%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에 포함된 6개의 독립변수 중 조부모 접촉빈도( $\beta=.25, p<.01$ ), 조부모에 대한 인식( $\beta=.23, p<.05$ )과 세대통합교육 빈도( $\beta=.23, p<.05$ )의 세 개 변인만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조부모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그리고 세대통합교육의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상과는 달리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나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한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와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고, 조부모 관련 변인과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 참여 아동의 46.2%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었으며, 조부모와의 접촉은 평균 2.97이고, 조부모에 대한 인식은 평균 4.09로 나타나서 아동의 조부모와의 접촉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조부모와의 접촉빈도는 외조부모에 비해 친조부모와의 접촉이 더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사회가 여전히 부계혈족 중심

의 가족관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3.78로 중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아동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세대통합교육의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주 2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이 71.2%였으며, 아동의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평균 4.0( $SD=.89$ )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강사와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은 평균 3.71( $SD=1.04$ )이었으며, 세대통합교육의 도움 정도의 평균은 4.12( $SD=.93$ )로 아동은 자신이 참여한 세대통합교육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이 참여하고 있는 세대통합교육은 한문 등 학습지도가 74.1%로 가장 많았는데 아동은 학습지도 교육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만 학습지도(31.9%) 이외에도 특기적성 교육(24.1%)과 예절교육(22%) 등의 세대통합교육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학습위주로 되어 있는 세대통합교육의 내용을 다양화가 필요가 제기된다.

넷째,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부모와의 접촉빈도( $\beta=.25, p<.01$ ), 조부모에 대한 인식( $\beta=.23, p<.05$ )과 세대통합교육 빈도( $\beta=.23, p<.05$ )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조부모에 대한 접촉빈도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에 포함된 6개의 변인 중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가 증가되면서 노인과 자녀세대, 손자녀 세대의 별거가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조부모와 자주 접촉할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세대관계가 더욱 중요시 여겨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내에서 세대간의 교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부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이고, 세대통합교육도 도움( $r=.20, p<.05$ )이 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일반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고, 세대통합교육 즉 노인강사와의 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아동의 조부모에 대한 인식은 조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도 일치한다(김귀자, 2004; Hans, 1973; Resencran & McNevin, 1969).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은 예상과는 달리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다는 선행연구(이미애, 2007; 이미정, 1996; 이은미, 1990; 한정란, 2000; Burke, 1982) 결과와 조부모와의 동거 자체 보다는 조부모와의 접촉의 빈도나 질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분의 노인과 뜻 깊은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경우 노인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Resencranz 와 McNevin(196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부모 동거경험( $r=.19, p<.05$ )보다 조부모 접촉빈도( $r=.27, p<.01$ )와 조부모에 대한 인식( $r=.30, p<.01$ )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하게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조부모와의 단순한 동거경험보다는 조부모와의 접촉 빈도나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 중에서는 세대통합교육의 빈도만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세대통합교육의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대통합교육의 빈도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분산분석( $F=2.72, p<.05$ )과 사후검정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했을 때 주 1회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의 평균이 3.69, 주 2회 3.75인데 반해 주 3회 이상의 경우 4.09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세대통합교육의 빈도가 높을수록 노인강사와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는( $r=.23, p<.01$ )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세대통합교육이 아동에게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기회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세대통합교육이 아동의 학습적인 측면 이외에도 세대간의 거리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대통합교육의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인력의 활용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노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봉사를 받기만 한다는 수동적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경륜과 지혜, 풍부한 사회경험이라는 소중한 지혜를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 세대통합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들어 높은 학력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노인인

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을 세대통합교육과 같은 보다 창조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노인의 고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용한 산업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인부양을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재정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사회통합 방안으로도 기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인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임우석, 2008; 한정란, 2002).

현재 아동대상의 교육기관 중 노인강사를 활용하거나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다. 현재의 아동은 미래의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이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미래사회에서 발생할 다양한 세대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며, 아동들은 노인과의 접촉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우리사회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지역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노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세대통합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대통합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세대통합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교육이 재미 있다는 인식을 가진 아동일수록 세대통합교육( $r=.31, p<.01$ )을 기대하고, 노인강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고( $r=.45, p<.001$ ), 세대통합교육이 도움( $r=.41, p<.001$ )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세대통합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수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대통합교육 실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지도 중심의 세대통합교육에서 벗어나 특기적성이나 놀이 등 학습에 얽매어 있는 아동들에게 노인세대와 함께 전통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거나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인강사 파견기관에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의 세심한 사전교육의 실시가 필수적이다.

여섯째,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 중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세대통합교육 도움의 변인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풀이될 수 있다. 우선,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다니는 8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한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동이 세대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고, 세대통합교육이 흥미 있다는 응답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과 노인간의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접촉기회와 의미있는 학습경험의 공유가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권중돈, 2005)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 세대통합교육의 빈도가 높을수록, 특히 한 주에 3회 이상 세대통합교육을 받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12.1%만이 주 3회 이상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한 것이 또 다른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수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이 세대통합교육 참여 기간이 짧고 참여빈도가 낮아서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여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세대통합교육의 도움 정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할 기관에서는 세대통합교육을 주 3회 이상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 조부모 관련 변인과 세대통합교육 관련 변인 중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조부모와의 접촉빈도로 나타나서 조부모와 접촉빈도가 높은 아동들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조부모세대와 손자녀 세대간의 접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대간의 별거 구조 속에서 세대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방법과 가족 내 세대간의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거주 거리 등으로 인해 조부모를 자주 접촉할 수 없는 아동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통합교육의 빈도가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부모와 자주 만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다양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세대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세대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가올 고령화 사회의 갈등과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대통합교육에서 만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과의 접촉을 통해 아동들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를 모집할 때 유의표집을 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도 많지 않았으므로 연구집단의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다니는 기관마다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한 기간이 다양했고,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한 기간이 전체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세대통합교육 참여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만을 조사한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세대통합프로그램의 참여가 노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대통합교육이 실시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통합교육 참여가 고령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측면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고은교·정민숙(2008).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1), 323-337.
- 권중돈(2005). 노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의 세대통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15-33.
- 김광숙(1987). **청소년의 노인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귀자(2004). **아동·노인간의 세대공동체교육프로그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1993).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숙(2002). 중·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한국노년학**, 21(3), 75-89.
- 김윤정·강인·이창식(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 김윤정·정선아(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11.
- 김은경(2003). 조부모관련 변인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63-77.
- 박경란·전예화·김희년·오찬옥(2004). 아동과 노인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세대간 상호작용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17-27.
-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관리학회지**, 30(2), 219-236.
- 서정기(1993). **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귀연(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중(2004). **세대공동체를 위한 노인과 아동 통합프로그램의**

-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재선(2005). 노인·아동 세대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규(2003). 세대공동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은진(1990).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문숙·손연정·김용순(2007). 초등학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1), 54-63.
- 윤진·조석미(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1, 75-85.
- 이금룡(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모색. *노인복지연구*, 26(4), 143-164.
- 이동원·박옥희(2000).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미애(2007). 초·중·고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자(1989). 연령 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수원(1980). 태도, 태도변산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학술대회자료집*, 11-14.
- 이은해(1981).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논총*, 8, 357-370.
- 임재택·김윤옥·김경호(1996). 보육시설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1), 1-33.
- 임재택(2001). 유아교육기관의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5), 67-101.
- 정미실(1996). 아동·부모·조부모 특성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논문집*, 9, 239-262.
- 한정란(1994). 세대공동체를 통한 노인교육과정의 예시적 실천 연구. *한국노년학*, 14(1), 140-153.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한정란(2001).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 한정란(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4(3), 181-194.
- 한정란(2002). 노인교육과 세대통합: 세대 공동체 교육. *Andragogy Today*, 5(1), 91-108.
- 한정란·김귀자(2004). 세대공동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3(1), 157-177.
- 한준상·기영화·허정무·한정란·이준학·서혜경·김태훈(1999). 21세기 한국노인교육의 장기정책 발전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 한준상·기영화·안관수·이장익·한정란(2000). 세대간 공동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 허우정·하은옥·김은주·조민영·임부연·황해익(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노인-아동 세대통합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0(4), 331-350.
- 홍봉선·남미애(2002). *청소년복지론*. 경기: 양서원.
- Aday, R., Rice, C., & Evans, E.(1991). Intergenerational partners projects: A model linking elementary students with senior volunteers. *The Gerontologist*, 31, 263-266.
- Anderson-Hanley, C.(1999). Experiential activities for teaching psychology of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5, 449-456.
- Baggett, S.(1981). Attitudinal consequences of older volunteers in the public school setting. *Educational Gerontology*, 7, 21-33.
- Butler, R.(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N.Y.: Harper and Row.
- Dellmann-Jenkins, M.(1997). A senior-centered model of intergenerational programming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6(4), 495-506.
- Hans, J. D.(1973).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8, 67-71.
- Klausmeier, J. J.& Ripple, T. (1971). *Learning and human abilities*. N.Y., NY: Harper & Row.
- Laney, J. D., Wimsatt, T. J., Moseley, P. A., & Laney, J. L.(1999). Children's ideas about aging before and after an intergrated unit of instruction. *Educational Gerontology*, 17,
- Oljenik, M. G., & LaRue, C. A.(1981).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Esteem*. Princeton, N.J.:Princeton Univ. Press.
- Resencran, H., & McNevin, H. T(1969). A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Measurement*, 9, 55-59.
- Revenson, T. A.(1989). Compassionate stereotyping of elderly patients by physicians: Revising the social contact hypothesis. *Psychology and Aging*, 4, 230-234.
- Rodeheaver, D.(1990). Ageism. In I. A. Parham, L. W. Poon, & I. C. Siegler(Eds.), *Access: Aging curriculum content for education in the social-behavioral sciences*. N.Y.: Springer Publishing.

- Seefeldt, C. R.(1987). The effects of preschoolers' visit to a nursing home. *The Gerontologist*, 27, 467-482.
- Seefeldt, C. R., Jantz, R., & Galpur, A.(1977). Children's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 301-311.
- Seefeldt, C., Warman, B., Jantz, R. K., & Galper, A.(1990). *Young and old together*.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Thomas, J. A., & Ymamoto, Y.(1975). Attitude toward age: An exploration in school-ag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6, 117-129.
- Tuckman, J., & Lorge, I.(1952). The influence of a course on the psychology of the adult o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and older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43, 400-407.

- 접수일 : 2011년 03월 03일
- 심사일 : 2011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0일